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마이산의 줄사철나무

무한히 뻗어나가는 힘, 마이산 줄사철나무 나는 종종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식물 세밀화 수업을 한다. 우리가 만나서 식물을 관찰·기록하는 곳은 주로 학교, 정원, 공원 등이고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든 늘 마주치는 식물도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사철나무가 있다. 우리는 도시 어디에서든 사철나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추위와 공해에 강하며,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만큼 관리도 용이하고 성장력도 좋다. 바닷바람과 염분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과 주택, 빌딩 등의 경계를 짓는 나무로 심어져 왔다. 우리에게 화훼식물로서의 효용성이 너무 많은 나무,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철나무와 한 가족인 줄사철나무도 분포한다. 줄사철나무는 사철나무보다 꽃과 열매, 잎이 작고, 다른 나무에 착생해 공기 뿌리로 양분을 흡수해 살아간다. 덩굴성이기 때문에 덩굴사철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돌은 이름도 형태도 비슷하지만, 인간에게 정반대의 취급을 받는다. 사철나무는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화훼식물이지만, 줄사철나무는 너무 흔한 반면 덩굴성이라 화훼식물로서 사철나무만큼 가치가 없고, 다른 나무에 붙어 자라는 것에 마땅치 않은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물론 이것은 인간 기준일 뿐 우리에게 사랑받지 않는다고 줄사철나무를 연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기에 덜 훼손되고, 더 널리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마이산에는 특별한 줄사철나무가 있다. 마이산 근처에 다다르면 거대한 봉우리 두 개가 보이는데 산의 이름 또한 이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아 붙여졌다. 그런 마이산에는 절벽에 붙어 성장하는 거대한 줄사철나무가 있다. 10년 여 전, 처음 이 풍경을 목격했을 때 이들이 내가 알던 작은 줄사철나무와 같은 종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마이산의 줄사철나무가 절벽을 정약해 잎과 가지를 뻗은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식물의 동물성을 느꼈다. 나는 종종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란 식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식물에 갖는 잔잔하고 고요하다는 편견은 인간 종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식물을 경계하느라 만들어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이토록 크고 오래된 나무를 보면 경외감이 드는 한편 죄책감도 든다. 줄사철나무가 이토록 적박한 바위를 발판삼아 생장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걸 나무도 그만큼 혹은 이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줄사철나무를 보면서 내가 아는 다른 나무들이 떠올랐다. 어느 미술관 벽틈의 작은 줄사철나무, 아파트 단지의 울타리 사철나무, 동네 학교의 화살나무... 적어도 다 같이

가족같은 품종의 나무인데. 이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간으로서 내 결의 나무도 제 형태대로 살게 놔두지 못하면서 남 일 보듯, 자연이 다 한 듯 오래되고 큰 나무에 경외감만 가진 것에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게다가 도시에 심어진 사철나무에게 자주 따라붙는 병이 있다. 흰가루병이다. 봄이 되면 사철나무 앞에는 흰 가루와 같은 곰팡이가 자주 핀다. 사철나무 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채소와 장미, 배롱나무, 버즘나무 등이 이 병에 자주 걸린다. 재배 환경이 너무 습하거나 촘촘히 밀식되어 있는 경우 걸리기 쉬운데, 도시에서 이들은 주로 밀착되어 생활타리용으로 식재되다 보니 이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흰가루병이 나무를 바로 죽게 만들거나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앞에 흰 가루가 있다 보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심하면 잎이 갈변하면서 낙엽이 지게 된다. 나무가 도시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시가 나무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가 아니다. 차로 변형지통 옆이 원산지인 나무는 없다. 나무는 그저 인간에 의해 이곳에 뿌리내려졌고, 그렇게 된 이상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약탈고 도시의 오염된 흙과 공기, 소음, 적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마이산의 줄사철나무를 되돌아보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나무의 삶을 우리가 억지로 가로막고 있음에 죄책감이 느껴진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난임 부부의 고통과 스트레스 관리



기건형 시엘병원 난임클리닉 원장

과 절망감이 커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런 경험이 장기간 반복되면 상당수의 부부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부 간에 돌이키기 어려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1년여 전부터 상담을 해 온 한 부부의 사례를 들자 한다. 32세의 동갑나기로 비교적 젊은 부부였다. 어느 날 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3년 동안 임신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짧은 상담 시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부부가 모두 심적 불안감과 심한 상실함에 빠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부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을 진단 받은 탓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임신 소식을 듣는 것마저 힘들어 할 정도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 '원인불명의 난임'이란 여성의 배란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부의 난임 관련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사실 '원인불명의 난임'의 기전에 대해서는 난자 성숙 장애, 난자·정자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와 연계된 스트레스와 난임의 과학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연구 결과와 상담 경험을 토대로 환자분들에게 심리적 안정이 난임 치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이 난임 부부에게 임상적 치료 뿐만 아니라

명상,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휴식 등의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안내하며 정부·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심리치료 제도를 꾸준히 소개했다. 또한 부부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필자가 함께 원팀이 되어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실제로 이 부부는 6개월 후 그토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수개월 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형성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됐는지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긍정적 작용을 했음은 확실하다. 현재도 필자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그에 따른 자가 조절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치료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난임 전문병원에서의 치료는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해 난임 부부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시엘병원에서는 난임 부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원만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 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난임 부부들에게 한층 체계적인 심리 교육과 자원을 제공해 이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아사카와 형제 기념공원 준공에 부쳐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람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라고 적혀 있다. 지금부터 65년 전 아카타 공업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베 요시시게의 '정구잡기'에 실린 아사카와 다쿠미의 추도문 중 한 문장인 '노당당(露堂堂)'이라는 영험한 말(靈言)은 내 마음에 꽂혔다. 그 후 나는 국가, 민족, 종교 등 모든 장벽과 경계를 넘어 인류애를 실천한 아사카와 형제에 대한 경애와 감사, 동경을 품고 재일교포로 살아왔다. 1995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사카와 다쿠미 64주 기제가 망우리 묘지에서 거행되고 서울 롯데호텔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그 후 나는 일본에서도 아사카와 다쿠미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사카와 다쿠미 추모 모임'과 함께 그의 고향 호쿠토시 기요사토에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설립을 주도하고 한국의 공예품을 기증했다. 또한 내 인생의 나침반과 같았던 다쿠미의 고향 기요사토에 별장을 짓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공유하기 위해 사숙 기요사토긴자주 크를 개설해 매년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을 교육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밖에도 다쿠미의 생을 기린 영화 '백자의 사람' 제작 등에 관여했으며 2021년에는 아사카와 다쿠미 탄생 130년, 서거 90주년을 기념해 '경애와 감사를 담아', '노당당(露堂堂)'이라는 비문을 새기고 아사카와 형제 탄생지에 현창비를 건립했다. 이 공원에는 나의 별장에 있던 정원석 12개와 석물(제주도산)을 기증했고, 그 정원석 중 하나에 추모 모

임에서 공원 이름을 각인했다. 공원 조성 제안을 받아 들인 가미무라 시장을 비롯한 호쿠토시와 추모 모임의 창시성, 의욕과 실행력에 감사할 따름이다. 정원에는 아사카와 다쿠미 선생이 개발한 묘목인 '조선오염송' 묘목을 심었다. 사실은 10여 년 전, 아마 비코 홀 현관 앞에 한일 우호 친선을 기원하며 이 나무를 심었는데 시들어 버린 적이 있다. 만약을 대비해 기요사토긴자주주에서 공부했던 재일교포 신창석씨가 보내준 씨앗을 내 별장 마당에 뿌려두었는데, 2~3년이 지나 싹이 났을 때는 기쁨의 만세를 불렀다. 그 묘목을 아사카와형제자료관 관장에게 맡겨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길러냈고, 이번에 식재하게 됐다. 앞으로 크게 자라서 명목, 대목이 되어 한일 우호 친선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행복과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 믿는다. 공원에는 2021년 필자가 기증한 형제의 현창비 주변이 잔디로 교체되고 서울 망우리의 다쿠미 묘비가 복제 설치돼 있다. 이번 준공식에는 호토쿠시와 자매도시인 경기도 포천 방문단과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옥재 총영사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21년 6월 우연히 호쿠토의 가미무라 에이치 장에게 아사카와형제자료관 앞 부지 등을 정비해 아사카와 형제를 현창하는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면 한일 양국 교류의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었다. 그날의 제언이 이렇게 실현돼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아사카와 형제 기념공원 준공을 계기로 한일 우호와 친선 국제교류가 한층 진전되기를, 이 공원이 한일 간의 흔들림 없는 유대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社說

건축 재정에 광주·전남 미래산업 위축될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20년만에 가장 적게 편성했다. 감세 탓에 건축 재정을 짤 것인데 국비 예산 감소로 광주·전남 주요 미래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외결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인데 반해 총수입은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감세로 인해 내년엔 세금이 51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건축 재정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도의 국비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9% 늘어난 반면 광주시의 국비 예산은 3조1426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3.0%인 971억원이 줄었다. 정부의 건축 기조 속에 전남은 정부 예산안 증가율(2.8%)보다 2.1% 포인트 늘어 섰지만 광주는 13년 만에 국비 확보액이 전년 대비 마이

나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다. 광주의 경우 국비 지원이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대거 반영되지 않아 충격이 더하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과 공백을 잇는 '초기대 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및 증강환경 조성' 사업이 제외된 점이 뼈아프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계와 어민 지원을 위해 건의한 8개 사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만 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을 전략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인 미래 산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력·장비 대폭 늘려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당국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산물의 유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 불안은 잠재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보전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일부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비정기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던 방식을 오염수 방류 이후 매주 1회 검사하는 정기검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90건이던 정기검사 횟수가 2배 늘어 27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료 수거 역시 기존 월 1회 10건이었지만 대폭 확대돼 주 1회 6건(월 4회 24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횟수를 늘려도 검사 1건 당 3시간이 걸리는 탓에 일주일에 한 차례 진행되는 검사로는 전남 2개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6건의 수산물 밖에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주 수산물 검사를 한 목포시, 여수시를 제외한 전남지역 나머지 20개 시·군은 10주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

다. 검사 횟수를 늘린다고 그만큼 시료 수거와 배달, 검사 등 절차가 복잡해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수산물은 이미 식탁에 오르 뒤에서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검사 횟수와 품목이 늘어난 만큼 검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기간이 짧은 수산물의 특성상 유통 속도에 맞게 신속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이 한정된 상황에서 물·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수산당국이 마련한 대응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확실하고도 꼼꼼한 검사가 최선이다. 전남도 등 수산당국은 안전성 확보에 지역의 사활이 걸렸다는 마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앙투안 루이 클로드 데스튀트 드 트라시 백작이다. 1754년 태어나 1836년에 삶을 마감한 그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로 귀족이자 군인이었다. 프랑스혁명 당시 귀족 측 대의원을 맡았고, 나폴레옹 치하에서는 원로원의 일원, 왕정복고 후에는 귀족의 대열에 오른 대표적인 기득권층이었다. 그는 감각과 관념을 중시하는 관념학을 주장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 역시 프랑스에서 비롯됐다. 1791년 9월 공포된 프랑스 헌법에 근거해 10월 첫 선거가 실시되 입법회의가 구성됐는데 중도파가 340석,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인 피앙파가 240석, 국왕없이 공화제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130석을 차지했다. 피앙파가 주로 의사당의 우측에 앉았고 자코뱅파는 주로 좌측에 앉았는데, 이로 인해 온건한 세력은 우파, 급진적인 세력은 좌파라고 부르는 관행이 생겼다. 서양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과 마찰을 겪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다.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가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면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프롤레타리아는 저임금과 열악한 주거 등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에 대응해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들고 나온 것이 19세기 중반이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대립의 추는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인정, 경쟁 체제 등의 장점을 가진 자본주의로 이미 기울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좌파와 우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은 20세기 기나긴 냉전을 거쳐 세계 곳곳에 각기 다른 형태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상호 견제와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져 세계 평화, 국가의 성장·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권력, 이익을 견고히 하려는 정치세력 때문일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열린 사회, 포용 국가로 가기를 바라다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일 것 같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편집국안내, 정·집·부, 경·정·부, 사·회, 전·남·본·부